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8. 26.(금), 14:00 ~ 17:30
- ▣ 장 소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213호)
- ▣ 출석위원 : 장인진(위원장), 강대일, 김종철, 김형진, 도진영,
박성진, 배병일, 우인수, 이영호, 이정화, 임남수, 한기문/
김무진, 양승경 위원/ 정우락 조사위원/
김미경, 채광수 전문위원 (이상 1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p>도지정문화재 지정 (6건)</p> <p>포항 원법사 소장 사리불아비담론 권제30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제20 육경합부 퇴계선생수묵 구미 죽장리 이정표석 구황촬요</p>	(공개)
2	<p>국가지정문화재 신청대상 선정 (3건)</p> <p>희령군 어사금 선현유적 산천가속동국통지</p>	(공개)
3	<p>도지정문화재 심의대상 선정 (9건)</p> <p>경주 방어리 상동계 문서 영천 용화사 관음보살도 영천 용화사 석가설법도 영천 용화사 신중도 자치통감 권81-85 단경왕후 온릉봉릉도감 계병 무이구곡도 칠송정동회록 울진 수진사 신중도 포항 충비 단량비</p>	(공개)
4	<p>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변경) (1건)</p> <p>청도 운문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처리 및 개금</p>	(공개)
5	<p>도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사항 (1건)</p> <p>구미 남화사 석조약사여래좌상</p>	(공개)

1. 도지정문화재 지정(6건)

가. 제안사항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6건의 문화유산을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 하오니 지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6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구분	지정종별	신청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1	유형문화재	포항시장	포항 원법사 소장 사리불아비담론 권제30 (浦項 元法寺 所藏 舍利弗阿毘曇論 卷第三十)	1책	원법사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65길 9
2	유형문화재	영천시장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제20 (阿毗達磨大毘婆沙論 卷第二十)	1첩	영천역사박물관	영천시 선창길 9
3	유형문화재	영천시장	육경합부 (六經合部)	1책	영천역사박물관	영천시 선창길 9
4	유형문화재	예천군수	퇴계선생수묵 (退溪先生手墨)	1점	권덕열	예천군 용문면 죽림길 43 (예천박물관 보관)
5	문화재자료	구미시장	구미 죽장리 이정표석 (龜尾 竹杖里 里程標石)	1기	국유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163
6	문화재자료	영천시장	구황촬요 (救荒撮要)	2책	영천역사박물관	영천시 선창길 9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 가결 12명

안건번호 동산-22-3-2

2. 국가지정문화재 신청대상 선정(3건)

가. 제안사항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3건의 문화유산을 해당 군수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승격)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지정 신청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3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지정 및 승격) 신청대상으로 선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구분	신청종별	신청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1	보물 (승격)	예천군수	희령군 어사금 (熙寧君 御賜琴)	1태	전주이씨 희령군파 종중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3 이정사 (예천박물관 보관)
2	보물	예천군수	선현유적 (先賢遺蹟)	1점	정경수	예천군 예천읍 고평길 70-17 (예천박물관 보관)
3	보물	예천군수	산천가숙동국통지 (山泉家塾東國通志)	24권 17책	박광모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52,101-1303 (예천박물관 보관)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① **희령군 어사금** :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신청한 '희령군 어사금(熙寧君 御賜琴)'은 태종이 숙의 최씨 사이에 태어난 6남 이타(李佖,熙寧君, 1412-1465)에게 내려준 거문고임. 누대에 걸쳐 광주군 대왕면 율현리 사당에 보관하여 왔으나 임진·병자의 난에 사당이 손실되었지만 거문고만은 소중히 보관 전승해오다가, 13대손 이병성이 봉사손으로 역대에 공훈을 인정받아 용문면 구계리 불천위(不遷位)사당 이정사(夷靖祠)를 세우고 보관해 오다가 훼손을 염려하여 예천박물관에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음. 희령금의 배면에는 “內賜 熙寧琴”이라 음각되어 있고 거문고의 갑 내면에는 “太宗大王 所 珍琴. 內賜 熙寧琴”이라 적혀있다. 희령금은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에 나타난 거문고 산형의 제원 보다 길이, 넓이, 폭이 작다. 희령금이 정형적 거문고에 비해 작은 이유는 희령군이 어렸을 때 하사받은 것으로 추정됨. 1915년 3월 예천구계문회(醴泉九溪門會)에서 각 문중에게 돌린 문서 통문(通文)의 기록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귀중한 유산이지만, 상판의 오동나무와 배면의 밤나무 2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문고의 형체를 구성하고 있는 20개 가량의 소 구조물들은 근자에 개비(改備)되어 있음. 하사받을 당시의 희령금의 본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어 보물로 승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② **선현유적** : 이 책에는 1597년 3월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체포되어 추국을 당하자, 약포 정탁(鄭琢, 1526-1605)이 그를 구명하기 위해 작성한 「논구이순신차(論救李舜臣筭)」의 초고가 수록되어 있음. 뒤에 후손이 표지를 만들어 보존하면서 '선현유적(先賢遺蹟)'이라는 표제를 붙인 것으로 추정됨. 정탁은 예천 출신이며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우의정으로 재직하던 당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한 것으로 유명함. 정탁은 이순신을 구명하기 위해 두 번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초고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올린 글이 왕의 윤허를 받아 이순신이 특별 사면되어 두 번째 상소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짐작됨. '이순신 구명 상소 초고'

인 『선현유적』은 『약포선생문집』과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상소의 초고로, 문집을 편찬할 당시 수정된 자구의 출입과 정확한 작성 연대를 확인해 주는 원본이며, 정탁의 만년 필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다만, 정탁 관련 문적 일체가 보물로 지정(1968.12.19.)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조사를 통해 보물 추가 지정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③ 산천가속동국통지 :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산천가속동국통지』는 1868년에 산천(山泉) 박주중(朴周鍾, 1813-1887)이 편찬한 것으로 단군에서 순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물 백과사전임. 이 책은 중국 반고가 편찬한 『한서(漢書)』에 수록된 「천문지(天文志)」, 「오행지(五行志)」, 「율력지(律歷志)」, 「지리지(地理志)」, 「제사지(祭祀志)」, 「예악지(禮樂志)」, 「병위지(兵衛志)」, 「형법지(刑法志)」, 「식화지(食貨志)」, 「예문지(藝文志)」 등 10지(志)에다가 「학교지(學校志)」, 「선거지(選舉志)」, 「백관지(百官志)」, 「여복지(輿服志)」의 4지를 더해 전체 14지로 구성된 24권 17책으로 우리나라의 전장(典章)과 법도(法道),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임. 초고본 23책과, 이를 수정보완한 수정고본 24권 17책 완질, 그리고 수정고본의 권24 「여복지(輿服志)」를 재교정한 교정본 1책이 소장되어 있음. 특히, 이 책의 「지리지」에는 조선 숙종 때 인물인 안용복이 울릉도·독도 영토문제를 해결한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어,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힌 중요한 자료라 판단됨. 이 책은 비록 간행되지 못했지만 책을 간행하기 위한 초고본과 여러 차례 수정한 교정본들이 함께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저술의 편찬과 교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초고본 23책, 수정고본 17책, 교정본 1책을 일괄하여 41책 전체를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마. 의결사항

- 3건 중 2건은 유형문화재 지정대상 선정, 1건은 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가결 12명

3. 도지정문화재 심의대상 선정(9건)

가. 제안사항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9건의 문화유산을 해당 시장·군수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승격)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지정 신청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9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구분	신청종별	신청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1	유형문화재	경주시장	경주 방어리 상동계 문서 (慶州 防禦里 上洞契 文書)	31책	상동계	경주시 외동읍 입실시장길12-7
2	유형문화재	영천시장	영천 용화사 관음보살도 (永川 龍華寺 觀音菩薩圖)	1점	용화사	영천시 안야사1길 35
3	유형문화재	영천시장	영천 용화사 석가설법도 (永川 龍華寺 釋迦說法圖)	1점	용화사	영천시 안야사1길 35
4	유형문화재	영천시장	영천 용화사 신중도 (永川 龍華寺 神衆圖)	1점	용화사	영천시 안야사1길 35
5	유형문화재	경산시장	자치통감 권81-85 (資治通鑑 卷81-85)	1책	영남대학교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중앙도서관)
6	유형문화재	경산시장	단경왕후 온릉봉릉도감 계병 무이구곡도 (端敬王后 溫陵封陵都監 契屏 武夷九曲圖)	1점	영남대학교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박물관)

구분	신청종별	신청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7	유형문화재	예천군수	칠송정동회록 (七松亭同會錄)	1점	윤철재	예천군 지보면 신평리 272-1 (예천박물관 보관)
8	유형문화재 (승격)	울진군수	울진 수진사 신중도 (蔚珍 修真寺 神衆圖)	1점	수진사	울진군 평해읍 오곡2길 330-78
9	등록문화재	포항시장	포항 충비 단량비 (浦項 忠婢 丹良碑)	1기	황보 광남서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정동길 77번길 11-2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① **경주 방어리 상동계 문서** :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경주 방어리 상동계 문서(慶州 防禦里 上洞契 文書)'는 1652년(효종 3)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약 4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계(契)'의 구성원과 활동 내용을 담고 있는 일체 기록으로 총 31책의 문서임. 이 계는 1652년 창설 당시 무부(武夫)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자치 방위를 목적으로 활쏘기를 익히는 친목 단체로 출발한 '사계(射契)'였고, 그 후 방어리에 우거하게 된 남구명(南九明, 1661-1719)의 주도로 1693년(숙종 24) 사계에 관여하던 경주이씨·경주최씨·청안이씨 등의 사족들이 마을의 상부상조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의 '동계(洞契)'로 전환함. 1841년(헌종 7) 인근의 여러 동계와 차별성을 드러내고 마을 결속을 다지기 위해 '상동계(上洞契)'로 증수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 문서들은 계의 창립연대와 운영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고,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긴 기간 동안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조선시대 향촌 사회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다만, 현대 시기에 생성된 문서(5책)는 앞 시기 자료와 연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존의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제외함.
- ② **영천 용화사 관음보살도** : 이 불화는 화면 세로 77.8cm, 가로 55.5cm의 크기로, 가로 3폭의 비단을 이어 붙여 만든 단독의 '관음보살도'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불화임. 화면 하단의 화기를 통해 제작연도가 1819년으로 확인됨. 바탕천이나 안료 박락과 변색, 오염과 손상이 산재하고 있으나, 화면의 도상 배치와 구성 면에서 원 모습을 잘 보존하면서, 균형잡힌 안정된 구도, 정확한 좌우대칭의 도상, 기물 구성 등 19세기 관음보살도의 전형으

로서 형식과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임. 이와 같은 관음보살도의 도상은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함. 좌우대칭의 구도, 도상 배치 방식 등에서 18세기 관음보살도의 양식을 계승한 반면, 화면을 여백 없이 꽉 차게 구성한 점이나 정병의 기형, 기암괴석과 세트를 이루는 청죽의 묘사, 본존을 비롯한 주변 인물의 착의법, 녹색과 백색을 남용한 설채법, 하단부 물결 위에 엄격한 좌우대칭으로 자리한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의 배치 방식, 암반의 토파 묘사 등 세부 표현과 양식면에서는 19세기 불화의 특징을 보여줌. 또한 당시로서는 고급 안료인 주황색 석웅황의 분말이 함께 발견되어 당시 불화 재료 연구에도 가치가 큼. 이 불화는 안료 박락과 변색이 관찰되지만, 현존작이 몇 안되는 19세기 전반의 〈관음보살도〉로서 제작연대가 분명하고 희소성,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③ **영천 용화사 석가설법도** : 이 불화는 화면 세로 125cm, 가로 179cm의 크기로, 가로 5폭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형성한 상단 후불도임. 화면 중앙에는 향마촉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이 연화대좌에 좌상으로 묘사됨. 본존 불을 둘러싼 주위 권속으로는 사자와 코끼리를 탄 문수와 보현동자,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1열에 병렬로 앉아 있고, 2열에는 지장보살 등 보살 4위가 시립하였으며, 맨 뒤 3열에는 가섭과 아난 등 여섯 제자로 구성된 간략한 도상임. 하단의 하단부 화기를 통해, 원 봉안처는 창원 광려산(匡廬山) 만흥사(萬興寺) 백련암(白蓮庵)이며, 1850년 문성(文成), 영화(永和), 문수(文守) 3명의 수화승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비교적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19세기 사불산화파의 화풍을 계승한 것으로 짐작되는 문성이 그린 불화로, 안정된 화면 구성과 색감, 섬세한 인물표현 및 사자와 코끼리를 탄 문수·보현동자의 표현 등 당시 불화 도상의 다양성을 짐작하는데 좋은 자료임. 19세기 사불산화파의 맥을 잇는 새로운 화승 문성의 화풍 및 경상도 지역 화승 계보를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④ **영천 용화사 신중도** : 이 불화는 화면 세로 113.5cm, 가로 104cm의 크기로, 가로 3폭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형성한 신중도임. 화면 위쪽에 제석천과 범천 등 천부중(天部衆)이 자리하고, 구름을 경계로 나뉘어 아랫쪽에는 천룡부중(天龍部衆)의 신장상을 배치한 상하 2단 구도로 보이나, 하단 중앙에 천룡부 무리를 이끄는 위태천이 강조되어 상단과 하단의 주존을 중심에 두고 보면,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의 구도를 취하는 간략한 형태임.

하단의 하단부 화기를 통해, 원 봉안처는 창원 광려산(匡廬山) 만흥사(萬興寺) 백련암(白蓮庵)이며, 1850년 문성(文成), 영화(永和), 문수(文守) 3명의 수화승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화면 구성과 도상, 채색기법 등에서 사불산화파 내지는 팔공산화파의 전형적인 화풍을 따르고 있고, 제작연대나 봉안처가 명확하며, 필선이나 섬세한 묘사에서 필력이 뛰어난 수준작에 속함. 무엇보다 19세기 전반에서 후반을 이어주는 불화로 신중도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것과 문성·영화·문수 계열의 <신중도>가 처음으로 드러난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 ⑤ **자치통감 권81-85** : 이 책은 오침안정법으로 제본되어 있으며, 표지에는 ‘資治通鑑’으로 묵서하여 서명을 기입하였고, 표지의 여백에는 각 권에 대한 간략한 목차가 기입되어 있음. 이 자치통감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자치통감을 바탕으로 하여 세종조에 경복궁(景福宮)의 사정전(思政殿)에서 교정·주석하여 1436년(세종 18)에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한 책 가운데 일부임. 자치통감은 전체 294권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번 조사본은 진기(晉紀) 40권 가운데 권3-권7의 잔본으로, 권81-85에 해당함. 통치자에게 현실정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통치자의 정치교본이므로, 조선사회에서도 국왕의 경연에 채택하는 등 왕조사회를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음. 현재 초주갑인자 인본은 역사적으로 서지학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어 대부분의 자료들이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이번에 지정 신청한 『자치통감 권81-85』 또한 다른 곳에 동일한 인본이 없는 유일한 자료로 매우 중요하고, 현존하는 일부자료는 후대에 권차를 나누어 작은 분량으로 제본된 경우도 있는데, 신청한 자료는 5권이 하나로 제본되어 당시의 제본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어 중요도가 더해짐. 또한 1436년에 인출된 자료로 비교적 초기의 갑인자의 조판과 인쇄술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함.

- ⑥ **단경왕후 온릉봉릉도감 계병 무이구곡도** :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단경왕후 온릉봉릉도감 계병 무이구곡도’는 조선시대 중종반정 당시 폐비되었던 중종의 비 단경왕후(端敬王后, 1487-1557)의 왕후 복위(1739, 영조 15)와 관련하여, 온릉봉릉도감(溫陵封陵都監)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봉릉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8폭으로 구성된 계병(契屏)임. 계병의 앞면에는 무

이산도(武夷山圖)가 무이구곡(武夷九曲)의 순서 및 실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고, 뒷면에는 하늘의 도움으로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능역도감(陵役都監) 도제조 겸 우의정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의 글씨로 제작경위를 밝혔음. 박락된 부분이 많고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부분 또한 다수 있지만 처음 제작되었을 때는 색채와 구성이 조화를 이룬 수작으로, 이 작품이 왕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점, 문공사와 구봉사라는 추모공간을 중심으로 무이산의 다양한 경물을 재구성한 점, 무이산의 경물을 치밀하게 표현하면서도 자유로운 필치로 환상적 표현을 가미하고 있다는 점, 병풍 뒷면에 능역도감 송인명의 좌목서가 있어 제작의 경위와 연대를 분명하게 알게 한 점 등 매우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이 계병은 역사적, 문화사적, 회화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기존에 제작된 조선후기의 정형화된 〈무이구곡도〉에 비해 각 곡들을 자유롭게 구성한 방식이 특징적이며, 뒷면에 기록된 당시 능역도감을 맡은 송인명의 글씨도 수려한 행서체로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그리고 문화재 명칭은 '단경왕후 온릉봉릉도감 계병 무이산도'로 함.

⑦ 칠송정동회록 :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칠송정동회록(七松亭同會錄)'은 1598년(선조 31) 10월 19일에 영남 출신 중앙관료 15인이 한성부 명례방(明禮坊) 칠송정(七松亭)에서의 회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 죽호(竹湖) 윤섭(尹涉, 1550-1624)의 후손이 1711년에 다시 필사한 자료로 추정됨. 임진왜란 시기 재경 영남 출신 관료들의 교유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1860년대에 제작된 풍산김씨 김중휴(金重休)의 세전서화첩(世傳書畫帖)의 제10도 「칠송정동회도(七松亭同會圖)」의 제작연대를 짐작하는 데 보완 자료로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음. '칠송정동회록'은 당대의 기록물이 아니라, 후대에 후손에 의해 다시 필사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 김대현의 호 죽암(竹巖)과 자(字) 희지(希之)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후대 후손에 의해 필사된 것임을 명확히 해줌. 제작 연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자료의 내용과 가치 또한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⑧ 울진 수진사 신중도 : 이 불화는 화면 세로 140.7cm, 가로 140.3cm의 크기로, 가로 4폭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형성한 신중도임. 연꽃을 든 제석천과 위태천을 중심으로 크게 상하 3단 구성을 보여줌. 맨 윗열부터 제석

천을 중심으로 공양물을 손에 든 동자와 번을 들거나 합장한 보살 등 4구를 배치하였고, 가운데 열은 머리에 책관(冊冠)을 쓰고 홀을 든 일월천자(日月天子)와 원유관을 쓴 천자(天子) 2위가 시립해 있으며, 위태천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열에는 용뿔을 든 용왕과 삼지창 또는 칼을 든 무장한 신장 4구가 시립하여 상단에 천부(天部), 하단에는 천룡부(天龍部)를 함께 배치하였음. 하단의 화기를 통해 1803년 수화승 정옥(定玉)을 비롯한 행오(幸悟), 국성(國成), 채언(綵彦) 등 네 명이 참여해 조성한 것으로, 세밀한 인물 표현, 능숙한 필선에 적색과 녹색을 위주로 밝고 안정된 색감을 구사한 뛰어난 기량과 화풍을 엿 볼 수 있음. 제석전에 천룡부가 결합된 형식의 불화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옥이 수화승으로서 제작한 유일한 불화로 그의 화풍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작품임. 1803년이라는 제작연도로 불 때 유형문화재로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다만, 현재 문화재 명칭인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는 ‘울진 수진사 신중도’로 함.

- ⑨ **포항 충비 단량비** : 비석의 주인공인 ‘충비 단량’은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주인인 영의정 황보인이 피살당하는 참화가 일어났을 당시, 주인의 어린 손자를 데리고 포항 바닷가로 피신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한 충성스러운 여종이었다고 문중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는 인물임. 문중에서는 단량의 충심을 기리기 위해 황보인을 모신 광남서원 한 칸에 1956년 비석을 세워 현창하였고, 현재 비석은 비각 안에 위치해 있음. 단량의 행적은 문중 구전 외에는 입증할 만한 다른 기록은 발견되지 않음. 비석도 1956년에 건립되어 70년이 채 되지도 않으며, 양식상으로도 별다른 특징이 없고, 역사성과 예술성이라는 측면을 두루 고려할 때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9건 중 6건은 유형문화재 지정대상, 1건은 보물 신청, 2건은 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가결 12명

4.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변경)(1건)

가. 제안사항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아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보존처리) 허가(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허가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1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보존처리) 허가(변경)를 요청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구분	종 별	문화재명	수량	소재지	현상변경 내용	신청인
1	유형문화재 제503호	청도 운문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	1구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청도 운문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처리 및 개금(변경)	청도군수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① **청도 운문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처리 및 개금(변경)** : 당초 방사선 검사의 주 목적은 목심소조법으로 추정되는 본 불상의 제작기법 파악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방사선검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방사선검사는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전문가 자문(초음파검사 등 대체방법)을 통해 제작기법을 확인하여 기록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신청한 1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변경)허가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가결 12명

5. 도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사항(1건)

가. 제안사항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아래 도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지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1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을 요청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구분	종 별	문화재명	수량	소재지	관리단체 지정 신청현황	신청인
1	유형문화재 제577호	구미 남화사 석조약사여래좌상	1구	구미시 선기로3길 38-37	대한불교조계종 남화사	구미시장

※ 신청사유 :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화사가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 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① 구미 남화사 석조약사여래좌상 관리단체 지정 : 남화사 약사전의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습기나 얼룩 등의 보존상의 문제는 없으므로 남화사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는 양호함. 남화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관리단체 지정을 통하여 문화재 관리의 범위와 책무를 행정적으로 명확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신청서의 관리 계획에 제시된 개별사항의 상세계획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신청한 1건에 대하여 관리단체 지정 허가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가결 12명